



교단 제64차 정기총회가 지난 18일(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딤후 6:12)라는 주제 아래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33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열려 더욱 헌신하고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좌측 아래 원내 사진은 총회원들에게 당선인사를 하고 있는 신임총회장 진동용 목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1천 5백여 총회원 ‘한 마음’

제64차 정기총회, 바른 복음전파 앞장 다짐



신임총회장 진동용 목사

한국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오는 종교다원주의 사상과 혼합주의를 비롯 이단 사이비를 배격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1,500여 명의 총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는 18일(월) 오전 10시 등록접수를 시작하여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개회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교단 총무 엄하석 목사의 사도로 시작되어 교단 총회장 김용덕 목사의 인사말씀이 있었다. 김 목사는 “지난 회기 총회 임원들이 바울의 동역자를 처럼, 겸손한 자세로 지난 일 년 동안 함께해 주고 또 기도도 후원해 주신 회원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계속해서 부총회장 정부용 목사의 대표기도, 대구 경복지교회장 김명준 목사의 성경봉독, 은혜와진리교회 장로성가단의 찬양, 미국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장 정영호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미 6:6-9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지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역을 위해 충성하는 교단의 모습을 보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고전하고 “더욱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또 정 목사는 또 한국의 현재 교단의 부흥과 발전에 깊은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한 뒤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한국교회와의 협력관계 속에 전 세계에 복음을 확산시키는 일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총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특별기도로 나라와 민생안정을 위해, ‘교단발전과 개교회 부흥을 위해’, ‘성령충만한 사역을 위해’ 박명일 목사(교리장정위원장), 송광현 목사(기획위원장), 김복희 목사(교단 여교역자국장)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교단 총회장 김용덕 목사는 지난 한 회기동안 교단 발전을 위해 헌신해준 교단 임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총회장 김용덕 목사와 국제총회장 배진기 목사는 정책위원회장 조용목 목사로부터 공로패를 받았으며 부총회장 정부용 목사와 총무 엄하석 목사, 서기 진영갑

목사, 재무 주덕영 목사, 회계 황용연 목사는 총회장 김용덕 목사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30년 근속자에 대한 근속패는 정병우 목사, 임철규 목사, 김인희 목사, 김윤용 목사, 강태진 목사, 조병희 목사, 이창모 목사, 김중곤 목사 등 8명이 받았으며 전 국장로연합회장 차명환 장로와 전국사모연합회장 김영숙 사모에게는 감사패가 증정되었다. 이어 교단 회계 황용연 목사의 한글기도, 장로성가단의 한글송, 교단 서기 진영갑 목사의 광고, 교단 총회장 박영찬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전회원은 기념촬영을 하고 곧바로 사무총회로 모여 각종 업무 및 사업보고, 목사고시(교사위원장) 김인규 목사, 합격자 29명에 대한 인준에 이어 각 국, 각 위원회별 각종 사업보고 및 업무계획들을 처리했으며, 63차 총회 감사결과 및 결산보고 등이 통과되었다.

이어진 임원선거에서는 교단 헌법 제 84조와 교단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에 의거해 총회장에 진동용 목사, 부총회장에 조원익 목사, 총무에 김병목 목사, 서기에 이인규 목사, 재무에 김중연 목사, 회계에 김영준 목사가 각각 선출되었다.

신임총회장 진동용 목사는 당선 인사말을 통해 “교단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 준 총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느라 바쁘고 정직하게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목회현장을 만들어 가며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 이단 사이비를 배격하고 올바른 성경대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을 밝혔다.

신임총회장 진동용 목사 주재로 계속된 총회는 64차 총회 예산안 심의 및 결의, 각 지방회장 실행위원 자격인준 및 교단발전에 관한 건 등을 결의하고 제64차 정기총회를 은혜 가운데 폐회했다.

제64차 교단 총회에서는 2008년 교단통합 이후 행정구역별 효율적인 지방회 통합운영으로 효율을 극대화시켰다는 평가와 더불어 명실상부한 교단통합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단 사이비에 대한 불감증을 올바른 복음전파로 타파해 나갈 것과 올바른 복음전파와 사수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과 창조질서와 하나님 말씀에 아코나는 성지별금지법 추진 저지와 동성애자들의 광란의 축제를 저지하는 데 뜻을 모을 것을 밝혔다.



공로패 - 총회장 김용덕 목사



공로패 - 부총회장 정부용 목사



공로패 - 총무 엄하석 목사



공로패 - 서기 진영갑 목사



공로패 - 회계 황용연 목사

총회장 인사말씀

성경중심의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 전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저를 제64차 총회 총회장으로 추천하고 선출하여 주신 교단정책위원회와 총대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는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파하는 신앙의 기반 위에서 교세 확장에 힘써야 한다는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모여 협력하는 교단입니다. 성경적인 교리와 신앙은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세확장에 급급 하는 행위를 우리는 배격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종교일치주의 동성애합법화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은 성경에 예언된 종말의 징조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피자 각성을 촉구하며 믿음을 굳게 지켜 나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와 본질에서 벗어난 부패된 구습은 과감하게 타파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기본과 원칙을 따라 총회원들을 섬기며 직무수행에 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 의장이신 조용목 목사님과 증경총회장님들이 본 교단의 정체성을 견지하고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지도력을 발휘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교단의 정체성과 존립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정치적 세력화를 확대하는 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여 주시니 마음 든든합니다.

지도자는 전적으로 희생과 봉사로 직무를 수행하는 본 교단의 전통을 좇아 총회임원들과 더불어 솔선수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18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진동용 목사 드림

2015학년도 총회목회대학원 상반기 계절학기 개설 안내

- 일 시 : 2015년 7월 13일(월) ~ 17일(금) 4박 5일
- 장 소 : 본 대학원 301호 강의실
- 강 사 : 본 대학원 원장 임종달 목사, 직전 총회장 김용덕 목사 외 3명
- 등 록 비 : 1,200,000원
- 등록마감 : 2015년 7월 8일(수) 17:00
- 기 타 : 재학생은 무료, 미 취득 학점이 있을 시 학점 대체함
- 문 의 : 02)2677-0692~3(본 대학원 행정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원장 목사 임종달

선교 13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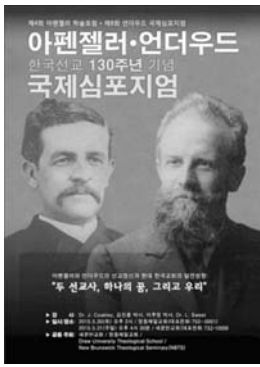
정동제일교회 · 새문안교회, 선교의 하모니 펼쳐

한국 기독교의 '모(母)교회'로 불리는 두 교회가 교파를 초월한 국제 학술대회를 연다.

기감 정동제일교회(송기성 목사)와 대한 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회(이수영 목사)는 오는 5월 30일과 31일 이들 동안, '아펜젤러·언더우드 한국선교 13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배출한 드류신학교와 뉴 브런스윅신학교도 공동으로 참여한다. 국제심포지엄의 주제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의 선교정신과 현대 한국 교회의 발전방향'이다.

심포지엄 첫날인 5월 30일에는 정동제일교회에서 오후 2시부터 연합예배가 드려지



며, 뉴브런스윅신학교 코클리 교수의 첫 강연에 이어 같은 학교 김진홍 교수와 김신대 이후정 교수의 강연이 이어진다.

둘째날인 31일에는 새문안교회로 장소를 옮겨 오후 4시 30분부터 드류신학교 스위트 교수의 강연이 진행되고, 이어 폐회예배를 드린 후 모든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두 교회는 국제심포지엄과 함께 초기 선교정신으로 되돌아가자는 자정적인 의미를 담아, 기독교가 전파될 당시 초기 형식대로 공동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예배는 정동제일교회와 새문안교회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며, 설교는 새문안교회 이수영 담임목사가, 찬양은 두 교회에서 선발한 50명의 연합 찬양대가 맡기로 했다.

심포지엄 마지막날인 31일 새문안교회에서 드려지는 폐회예배에서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4개 기관이 함께 '공동기도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교연, 인도네시아 복음주의협과 선교협약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이 인도네시아 복음주의협의회(대표회장 존스톤 실리통가 목사) 및 카탈로스인도네시아 신학대학교(재단이사장 제니 부명홀 목사) 등과 선교협약(MOU)을 체결하고 선교적 차원에서 상호협력하여 주님의 선교 지상명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한교연 대표단 13명은 지난 4-8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리야우주 페칸바루 동부 팔라왕시에 소재한 필라델피아교회에서 현지 목회자와 평신도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교협약식 및 선교포럼을 개최했다.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 동안 개최된 개막식은 현지 목회자와 평신도들로 구성된 찬양단의 열린 찬양과 복음주의협의회 대표회장 존스톤 목사의 설교, 팔라왕시 아부무 부시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했다.

이어 선교협약식은 오 아브라함 목사(공동회장)의 사회로 김훈 장로(한교연 기획홍보실장)의 기도, 최귀수 목사(한교연 선교교육국장)의 참석자 소개, 양국 대표회장의 인사,



협약서 서명과 교향, 노윤식 목사(한교연 선교위원장)와 아돌프 부다부다(카타로스신학대 총장)의 축사, 예수119 목도지킴이(회장 주복자 목사)산하 임마누엘선교부유단(단장 용회순 강도사)의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했다.

이어 3부 순서는 모든 참석자들이 주님의 성전에 참여하면서 뜨거운 기도와 찬양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병희 대표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박요한 목사(협인이사)

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연합과 인도네시아복음주의협의회, 카타로스신학대학교가 선교협력 관계를 맺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향후 양국 복음화와 세계 선교뿐 아니라 목회자 신학생 교류와 이단사 이비 대처 등 보다 깊은 교류와 협력관계를 이루어 나가기에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경적 원리 따라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 모색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개원 7주년 감사예배



개원 7주년을 맞은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은 지난 12일 강남중앙침례교회(피영민 목사)에서 감사예배를 드리고, 교회분쟁뿐만 아니라 모든 분쟁사건의 해결과 내지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1부 예배는 하태조 장로(합동 전국장로회 중경회장)의 기도, 오준수 목사(변호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김인환 감독(성은감리교회)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했다.

2부 축하행사는 문용호 변호사(부위원장)의 사회로 피영민 목사의 환영사, 안인평 장로의 인사말 등으로 진행됐으며, 신임 임원들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사장 피영민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적려와 관심 속에서 지난 7년간 사명을 감당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재원이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에 갈등만 있지 않고, 이를 해결하

려는 기관과 그런 노력이 함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데 있다"며 화해중재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화해중재원의 사역비전을 발표한 장우건 변호사(운영위원장)는 교회분쟁에 대해 "사건의 성격이 판결로서 해결하기에 부적절하며, 교회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성공하기도 어렵다"며 "판결보다 대체적 분쟁해결(ADR제도)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대법관가 격려사, 이강병 목사(한기총 명예회장)와 양병희 목사(한교연 대표회장)가 축사를 전했다.

박병대 대법관은 "현실 속에서 화해중재원이 성경원리와 실정법의 조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분쟁을 해결해 주니 법원의 이름으로 감사할 따름"이라고 인사했다.

한편, 화해중재원은 교인들 사이의 사법적 법률분쟁 및 교회 또는 기독교단체 내의 모든 분쟁을 법원의 소송이 아닌 대안적 방법(상당, 조정/화해, 중재 등)으로 자율적·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 4월 설립했다.

한기원 예우 초청 감사예배, 숙식 및 선물 증정

열린복지랜드교회

열린복지랜드교회(담임 원종문 목사)가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대표회장 서상기 목사/이하 한기원) 회원들을 초청해 한기원에 우초청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대표회장 서상기 목사의 사회로 복지랜드교회 담임 원종문 목사의 환영사 및 인사, 강진분 목사의 기도, 한만수 목사(전 한국기독교총회 대표회장)의 호세아 11:1~4 말씀을 본문으로 한 '하나님 사랑의 줄'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원들은 특별기도 시간을 통해 이 상형 사관이 나라의 발전과 민족번영을 위해, 조석오 목사가 '한기원과 열린복지랜드



교회의 발전을 위해' 각각 합심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열린복지랜드교회는 이틀동안 숙식과 함께 원로목사님들에게 정성어린 선물도 증정

했으며, 대표회장 서상기 목사는 "이번 한기원 회원을 초청해주신 열린복지재단 원종문 목사, 사모 김희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고 인사를 전했다.

예성 제94회 총회, 총회장에 송덕준 목사 추대

한국교회 성결성 회복에 앞장 설 것 다짐

예수교대한성결교회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안양시 소재 성결대학교 예성 80주년기념관에서 '오직 예수님의 믿음을 들으라'라는 주제로 '성결교회 선교 제109 연차대회 및 제94회 총회'를 개최하고 송덕준 목사(서울독일교회)를 총회장으로 추대했으며, 부총회장은 단독후보로 나선 이동석 목사(서울능력교회)를 선출했다.

이날 개회예배에서 총회장 이동석 목사는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가 앞으로 더 부흥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부흥의 여부보다 성결성을 지키는 데 있다"면서, "한국교회가 성결성을 회복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단이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대한기독교노사렛성결회 총회감독 한기동 감독은 축사를 통해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힘들면 교회를 찾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세상이 탈라진게 아니라 교회가 달라졌기 때문이다"며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



하자"고 말했다.

신임 총회장 송덕준 목사는 "총회장의 직위가 목사보다 존귀할 수는 없다. 목회적 관점에서 교단을 바라보고, 성결가족의 기도와 협력을 요청할 것이며,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하고, "교단 부흥을 위해 목회자의 영성을 강화하는 일에 집중하며, 복음운동, 성령운동, 부흥운동을 확산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미지리교회를 일으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한장개정안도 상정, 주요 내용은 지방회장의 자격 대폭 완화, 원로목사의 자격을 '목사 경력 30년'에서 '목회 경력 30년'으로 개정해 전도사 청빙 승인 이후부터 목회한 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총회장 송덕준 목사 △부총회장 이동석 목사 △장로부총회장 강규열 장로 △서기 홍시진 목사 △부서기 김윤석 목사 △회의록서기 이상록 목사 △회계 김중상 목사 △부회계 정기소 장로

한국장로교신학대학교 연합찬양제 성황리에 마쳐

서울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등 총 11개팀 참가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황수원 목사)는 지난 15일(금) 오후 6시 장로회신학대학교 한경직기념예배당(광진구 광장로5길 25-1)에서 제4회 '신학대학교 연합찬양제'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쳤다.

준비위원장인 백남선 목사(합동총회장)의 인도로 진행된 개회예배에서는 정종현 목사(백석총회장)가 롬15:1-7을 본문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장로교의 미래인 신학생들이 연합하여 찬양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2부 찬양제에서는 백석신학교 글로리아 성가대, 서울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밀알 중창단, 합동신학대학원 뿌리멜리, 장로회신학대학교 예미본찬양선교단, 종신대학교 남



성합창단,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성가대,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One Reason 합창단, 칼빈대학교 Grace 중창단 등 총 11개 팀의 찬양이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350여 명의 참가자 전원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이 '하나님의 영광'(Beethoven)을 합창함으로써 대미를 장식했다.

준비위원장 백남선 목사는 "장로교신학

대학교 찬양제 2012년 장로교단 총회 설립 100주년을 기념으로 시작되어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면서 "장로교의 미래인 신학대학생들이 찬양으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고, 한국 장로교회가 진리 안에서 연합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행사로 정례화가 된 점이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예장 해외합동 총회, 총회장 피종진 목사 선출

동성애 입법화 저지 공동대회 개최키로

한국교회연합 회원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해외합동(UKPO) 교단의 제37회 총회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시 헨더슨 크리스천대학교 대강당에서 지난 12일~14일까지 개최돼 총회장에 피종진 목사를 선출하고, 동성애 입법화 저지를 위해 한미 연합기관 공동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36개 노회 총대 10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일(화) 오후 4시에 드려진 개회예배는 중경총회장 김동욱 목사(필라노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중경총회장 박요한 목사(서북교회)가 '누구든지 사립을 지라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최낙신 목사(미기총 차기 대표회장),

전승현 회장(샬럿 한인회), 나성균 목사(노스캐롤라이나 한인 목사회 회장), 양병희 목사(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세계한인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의 축사와, 총회장 조도식 목사(필라델피아노회)의 인사말, 부총회장 피종진 목사(필라노회)의 축사로 개회예배를 마치고 동남부노회장 김영언 목사의 집례로 성찬식을 거행했다.

이어 열린 회무처리에서 새 총회장에 피종진 목사를 선출했으며, 동성애 입법화 저지를 위해 한미연합기관과 공동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네발 김도원 선교사(동남부노회 파송)의 선교보고로 지진의 폐해가 미국에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구호품을 전



달하기로 했다.

제 37회 총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피종진 목사(필라노회) ▲부총회장 김진철 목사(해외노회) ▲서기 김영언 목사(동남부노회) ▲회의록서기 유무세 목사(일본노회) ▲회계 윤교진 장로(미주동부노회) ▲상임총무 김경순 목사(워싱턴노회) ▲총무 임주창 목사(미주서부노회)

목회자들이 '동성애 축제' 강력 저지키로 결의

바울부흥선교협 조찬기도회 및 실행위원회

세계바울부흥선교협의회(대표회장 심재선 목사)는 지난 16일 오전 7시 30분 방이동 올림피아파크텔에서 조찬기도회 및 실행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이성민 목사의 사회로 문원순 목사의 기도, 기태영 목사의 성경봉독, 최남복 목사의 마 5:7~20절을 본문으로 한 '제자의 도'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

행했다.

예배는 계속해 이성민 목사의 헌금기도, 황준의 목사의 헌금송, 조지현 목사의 성사 낭독, 사무총장 김중석 목사의 광고에 이어 대표회장 심재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조찬기도회는 심재선 목사의 사회로 노병훈 목사의 개회기도에 이어 강봉규 목사가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김중석 목사가 '국가안보와 경제회복', 황준의 목사가 '2015년 교회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특별기도를 한 후 참석자 모두가 2015년 한 반도 평화와 화해, 통일을 위하여 합심기도를 했다.

이날 조찬기도회 및 실행위원회는 오는 6월 9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리는 동성애 축제인 '서울광장퀴어문화축제'에 목회자들이 다 같이 나서서 이 대회를 강력히 저지할 것을 결의했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병묵 목사 취임

‘거룩’, ‘명예’, ‘정직’ 귀중히 여기는 모임 다짐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병묵 목사 취임감사예배가 지난 14일(목) 오전 11시 금산 휴호텔 다목적홀에서 드려져 한 회기동안 충남기독교총연합회를 이끌어갈 제8대 대표회장 김병묵 목사를 축하하는 복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상임회장 강진경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예산군기독교연합회 회장 백동걸 목사의 대표기도, 회계 이대형 목사의 성경봉독, 금산장로교회 사본찬부단의 찬무, 김권진, 이우석 찬양시역자의 찬양, 교단 정책위원회 조용묵 목사(은혜와진리교회)의 말씀선포 순으로 이어졌다.

조목사는 고루 5:17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인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며 존재의 바탕에서 새로워진 사람”이라고 전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과 그 공동체인 교회는 그 본질과 특성인 거룩, 명예, 정직을 귀중하게 여기고 이를 드러내어야 하며 Holiness, Honor, Honesty 3H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함”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금산군기독교연합회 직전회장 신

동성 목사의 취임기도, 충남기독교총연합회로부터 취임패증정, 금산순복음교회 남.여선교회 성도들의 꽃다발증정, 대표회장 김병묵 목사(금산순복음교회)의 취임사가 있었다.

김목사는 취임사에서 복음과 진리 안에서 격려하는 충남기독교총연합회가 될 것을 다짐하고 디지털과 아나로그의 장점을 살려 세대를 아우르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갈 것을 다짐하고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중앙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지역내 다양한 사역자들과 협력하며 고전을 중히 여겨 충남기독교총연합회가 하나님의 은혜



설교
조용묵 목사



회장
김병묵 목사

가운데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계속해서 고문 박종서 목사의 격려사, 고문 김용술 목사의 축사, 사무총장 오종철 목사의 내빈인사소개와 광고, 고문 이승수 목사의 축도로 취임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는 관내 15개 시·군 연합회로 조직되어 있으며 대표회장 김병묵 목사, 상임회장에 강진경 목

사, 공동회장에 15개 시·군 연합회회장, 사무총장 오종철 목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복이열리는교회, 창립3주년 감사 임직예배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임영광 목사) 행복이열리는교회(담임 민병호 목사)는 지난 17일 오후 3시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1번길 6 소재 한동 교회에서 창립3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최은국 목사(순복음선한목사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정광호 목사(동문순복음교회)의 기도, 서기 김병호 목사(순복음행복한교회)의 성경봉독(요 13:12-17)에 이어 지방회장 임영광 목사(연천순복음교회)가 “믿고, 알고, 행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임목사는 설교를 통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통을 앞두고 어떠한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까를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자”면서 “항상 겸손의 자리, 사랑과 희생의 자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울러 “오늘 임직을 받는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본을 보인 주님의 모습을 닮아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교회는 속히 부흥될 것이며 성도들의 삶은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2부 취임식은 행복이열리는교회 담임 민병호 목사의 집례로 서약, 임직기도, 안수위원의 안수기도, 안수위원장의 공포, 임명장 및 취임패 수여 순으로 진행되어 민순자, 이화자, 민소정 집사가 권사로 취임했으며, 강길선, 민경자, 임유순 성도가 서리집사로 임

명되었다. 3부 권면과 축하 시간에는 증경회장 김서송 목사(순복음전성교회)와 김종연 목사(의정부은혜교회)의 권면, 증경회장 임웅재 목사(산정리순복음교회)와 직전회장 김홍광 목사(주내순복음교회)의 축사에 이어 임직자 대표 민소정 권사의 답사, 재무전하세 목사(열린축복교회)의 헌금기도, 담임 민병호 목사의 인사 및 광고에 이어 증경회장 엄하서 목사(주성교회)의 축도로 창립3주년 감사, 권사 취임 및 서리집사 임명예배를 마치고 동 교회에서 준비한 애잔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늘푸른교회 새성전 입당예배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김정수 목사) 소속 늘푸른교회(담임 윤광진 목사)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충북 남이면 가좌리에 아름답게 건축한 새성전에서 입당예배를 드렸다.

입당예배는 지방회 부회장인 최동순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총무 오병용 목사의 기도, 재무 김경준 목사의 성경봉독, 늘푸른교회 임마누엘 성가대의 특송에 이어 지방회장 김정수 목사(부강순복음교회)의 설교가 이어졌다.

김정수 목사는 렘 33:2-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모든 일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며, 다만 사람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뜨겁게 기도하



며 순종함으로 나가므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증언했다.

설교에 이어 증경회장 이문수 목사의 권면과 증경회장 이문근 목사의 축사, 봉헌기도, 늘푸른교회 담임 윤광진 목사의 건

축케요와 비전 설명과 광고 후 증경회장 김윤용 목사의 축도로 입당예배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교회에서 준비한 풍성한 애잔을 나누며 함께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교사 최홍용, 조은경, 오승희 목사임직예배

선교국

교단 선교국(국장 심용제 목사) 소속 선교사 최홍용, 조은경, 오승희 선교사에 대한 목사임직예배가 지난 18일(월) 저녁 은혜와진리교회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임직예배는 교단 총무 김병묵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총회장 조원익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교단 총회장 진동용 목사의 설교순으로 이어졌다.

진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충성을 다해 감당해 줄 것



을 강조하고 크게 쓰임 받는 일꾼들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수위원장 총회장 진동용 목사의 집례

로 이어진 임직식은 서약, 안수, 착의, 악수례, 공포, 임직증서(패) 수여, 총회장 진동용 목사의 축도로 임직예배를 마쳤다.

부산지방회

미국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소속 남가주 배향목교회 담임이며 국내선교위원장인 박경희 목사 초청 부산지역 여교역자세미나가 지난 13일(수)부터 14일까지 성황리에 열려 부산지역 여교역자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주는 귀한 성회가 되었다.

13일에는 순복음빛남교회(담임 조은혜 목사)에서 출15:19-21을 본문으로 ‘성경과 여성관’이란 주제로, 14일(목)에는 순복음백양교회(담임 최철권 목사)에서 골4:17을 본문으로 ‘부르심과 직분’이란 주제로 각각 열렸다.



‘2015년도 교사강습회’ 은혜 가운데 열려

“교회학교의 부흥과 학생들에게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여름행사” 기원

2015년도 교회학교 교사강습회가 5월 16일(토) 교육자료국 주관으로 ‘민음’(행 16:31)이란 주제와 ‘Come & Change’라는 표어 아래 안양성전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교사들은 오전 10시 대성전에 모여 거룩한 교사의 직분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하

나님께 개회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학생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길 기도하고, 이어진 여러 강의와 실습을 통해 교사로서의 자질 향상을 꾀하는 한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 수련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오전에 아동 부서의 교

사들은 새로운 찬양 울동을 배웠고, 중고등부 교사들은 신학원 백발아 교수의 ‘청소년 상담- 삶을 변화시키는 가이드’란 제목의 특강을 들었다. 계속해서 오후에는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에서 실시할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주요 포스트별 시연과 직접 체험을 통한 강습이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각 부서별로 교사와 교역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이날 강습회를 통해 더욱 신령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게 된 교사들은 주어진 막중한 시대적 사명을 사롭게 인식하고 성령 충만한 봉사와 섬김으로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를 맺어 가며 이를 통해 교회학교가 큰 부흥을 이루고 어린이와 학생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기로 한 마음으로 기원하였다.



제7회 총회장배 테니스대회



제7회 총회장배 테니스대회가 지난 18일(월) 오전 9시 안양시청 테니스장에서 열려 운동을 하며 심신을 단련하고 사림의 교제를 나누었다.

이날 대회 공로상에는 김용덕 목사, 우승에는 박상태 목사와 박종걸 장로, 준우승에는 미상우 장로와 최희식 장로, 감투상에 구석희 전도사가 각각 수상했다.

■ 생명의 말씀 ■



차 홍 식 목사

· 총서지부장
· 아산순복음교회

1. 은혜(생명)에의 첫째 감사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히9:27)

우리 인생은 죽기위해 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인생이라는 과정을 통해 앓다가 가는 존재입니다. 이 죽음 즉, 사망의 원인은 바로 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롬3:9) 결국 모든 태어나는 인생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3:24)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6:23)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3:16)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1:17)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우리 주님을 믿고 죄인 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마16:16, 히10:39, 벧전1:9)

2. 은혜(신분·직책)에의 둘째 감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던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롬8:14-19)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전2:16)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고3:9)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찌어다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4:1-2) 복음의 귀한 사명을 주시고 주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3. 은혜(관계·사명)에의 셋째 감사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흠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지키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려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삼넌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밋 그 은혜의 말씀에 부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이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돌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찌니라”(행20:28-35)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신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벧전5:1-4) 혼돈과 공허, 흑암의 한국교회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능히 선행한 귀감과 아름다운 본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장래의 원장 목사님을 비롯한 선배 목사님·동역자분들께 존경을, 또한 우리 교단에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눅4:43-44)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험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행4:29-31) “우리로 저의 은혜를 함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딤후3:7) “또 우리 사람들이 열매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딤후3:14)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았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름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딤후6:10-12)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거 간저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있을찌어다 아멘”(딤후4:18)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리고 성도여러분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승리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동 정

영풍회 매주 기도원 집회



한국기독교영풍회(대표회장 조예환 목사)는 매월 실행위원회 회를 통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8일 한빛중앙교회(석전희장편 무인 목사)에서 열린 5월 실행위원회에서는 부흥사로서 영성과 지성을 겸겸하는 목상과 동정기도회를 가지고 매주 기도원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나사렛대, 무료 건강검진



나사렛대(총장 신민규는 장예학장 2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19일부터 이들 간 믿음관에서 진행된 건강검진에 참여한 장예학장은 임상 병리학과 교수와 학생들로부터 혈당검사와 인바디 및 골밀도 측정 등 다양한 검사를 받았다. 또한 검사 결과와 건강관리 방법 등을 상담 받았다.

지역 위한 ‘공감 센터’



서울 신당동에 위치한 예수마음교회(담임 장학일 목사)가 1050석 규모의 대강당, 갤러리 카페, 키즈 카페가 위치한 ‘공감센터’로 리모델링될 예정이다.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하기 위한 ‘중구제기노인복지센터’, ‘청소년 무료 방과후교실’ 등 설립 이후, 건물 확장 대신 새로운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루터회, 장학사업 확대



기독교한국루터회(김철환 총회장)에서는 20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For the next Generation) 사업의 일환으로 목회자 자녀들에게 한정되었던 장학사업을 평신도 자녀 및 개교회에 출석하는 학생들에게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2017년에는 범교단적 차원에서 5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서울시, 동성애로 갈 길을 잃다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6월 9일 제16회 퀴어축제 개막식 장소로 내준데 이어, 또다시 6월 28일 퀴어축제 페레이드 장소로 허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6월 9일 퀴어축제 개막식 허락에 대하여 그 동안 수많은 시민/기독교 단체들의 염려와 강력한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규모 동성애 축제 페레이드 장소로 허락하므로, 서울 시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독재적 발

상이다.

서울 시민단체들과 기독교 단체들은 몇 차례의 일간지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 당국에 서울광장을 동성애 퀴어축제 개막식 장소로 승인해준데 대하여 사회적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며 공개 탄원을 한 바 있으나, 보란 듯이 다시 6월 28일 퀴어축제 페레이드에 장소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서울 시민들에게 정면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에서, 그리고 서울의 상징적 장소인 ‘서울광장’에서 잇달아 동성애 축제를 허락한 것은 서울시가 국민 대다수가 싫어하는 동성애 조장을 앞서서 자행하여, 서울시민들은 물론 전 국민들에게 매우 불쾌하고 불행하고 어리석은 일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 서울시는 서울 시민을 위한 공공의 목적을 저버렸으므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박원순 시장에 대한 국

민적 심판이 있어야 하며, 이를 허락한 담당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해 신촌에서 벌어진 퀴어축제를 보면, 음란과 폭력과 불쾌한 장면들이 상당수 나왔다. 이번에는 그 보다 더할 것으로 보인다. 동성애 문제는 결코 동성 간 사랑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 질병문제, 사회적 문제, 도덕과 윤리의 문란, 사회적 비용 증가 등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다.

서구 사회가 동성애를 지지 옹호한다고 해서 서울시가 앞장서서 이를 조정하는 것은 ‘문화시대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민의 74%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 18개 국가만 동성애를 합법화 하고, 절대다수 국가들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2011년 미국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의하

면 미국 청소년 에이즈 환자의 92.8%는 동성간 성접촉이었다.

우리 나라는 어떠한가? 세계적으로 에이즈 신규 감염자가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감염자수 1만명 시대에 들어섰다. 2013년부터 신규 감염자수가 매달 100명씩 연평균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10년간 내국인 HIV 감염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15~19세가 20.6%, 20~24세가 14.9%나 된다. 10대와 20대에서 높은 신규 감염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누가 우리 청소년들을 에이즈로 내모는가?

서울시는 이제라도 이런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을 철회해야 하며, 1,000만 서울 시민과 1,000만 청소년, 5,0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동성애의 무질서에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해 쓰임새와 효능 무궁무진-

최고의 ‘365일 신안비금천일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청정지역 신안에서 깨끗한 해수로 생산



대표 김옥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청정지역인 전남 신안의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되는 신안천일염은 풍부한 미네랄로 인해 그 쓰임새와 효능이 무궁무진한 식품입니다. 한국 최고의 천일염은 바로 신안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고혈압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분명한 것은 고혈압에 안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소금(천일염)을 잘 사용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소금은 미네랄이 별로 없거나 극히 미량이라고 합니다. 탈수할 때 강제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미네랄도 함께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써본 결과 음식맛이 확 달랐습니다. 재료 고유의 깊은 맛을 잘 살려주더군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신안천일염도 청정지역 신안의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하고 있어 미네랄이 풍부해 그 어떤 소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일반염과 천일염의 차이는?

1. 정제염은 100%로 염화나트륨이다. 반면에 천일염은 85% 염화나트륨, 15%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춘다. 2.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김치를 만들 때 천일염을 써야 맛과 풍미가 좋아진다. 발효균이 정제염보다 천일염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천일염은 어떻게 만드나요?

천일염은 태양열,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하여 해수를 저류지로 유입해 비닷물을 농축시켜서 만든 소금이다. 천일염의 주요 산지는 지중해, 홍해 연안의 각국을 위시해 미국, 인도, 중국 등 각 해양연안에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생산된다. 천일염의 염도는 일반적으로 90% 내외이고, 색상은 백색과 투명색이 있으나 한국산은 기상조건으로 염도 80% 내외의 백색이다.

천일염 만드는 방법

해수에 용존되어 있는 염분을 태양열, 풍력, 자연력에 의해 모화 함수로 만들어 결정시킨 것으로 우리나라 서 남해에서 많이 생산되며 염도는 85~88%정도이다. 계절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나며 30도 정도의 물의 온도를 맞춰 생성된 소금이 가장 좋다.

- 가격 20kg 1포 20,000원(택배비 2,000원 별도)
- 은행계좌 110-357-991640 신한은행 예금주 김옥대

헬렌루야!

그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립니다. 저희 신안(비금도) 천일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수가 잘 빠진 2013~2014년도산의 품질 좋은 제품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식당 또는 교회 성도님들이 단체로 구입할 경우 택배비없이 다량구매 특별 할인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연중무휴 365일 주문접수)

목양 칼럼

서헌철 목사 //

겸손하면서도 강한 지도자가 되자!

헤라클레스는 이름 자체가 괴력의 대명사로 쓰일 만큼 힘이 센 인물입니다. 그만큼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자신이 세상 최고라고 생각했죠. 어느 날 그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 한 가운데 사과 크기의 작은 물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감히 천하제일의 장사인 이 몸의 앞길을 막아?”라고 소리치며 그 물체를 발로 찼습니다. 그러자 작은 물체가 수백 크기로 커졌습니다. “나를 이겨 보겠다는 것이냐?” “좋다 맛 좀 보라” 헤라클레스가 물체를 더 세게 걸어차자 이번에는 거의 바위만큼 커져버렸습니다. 잔뜩 화가 오른 헤라클레스는 커다란 쇠몽둥이로 물체를 있는 힘껏 내리 쳤습니다. 그러자 그 작던 물체는 좁은 길을 꽉 채울 만큼 커졌습니다. 흥분한 헤라클레스는 옷을 벗어 던지고 물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동댕이칠 찰라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자는 바위를 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짓더니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물체는 점점 작아져 처음에 조그맣던 크기로 돌아왔습니다. 아리둥절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던 헤라클레스에게 그 사자는 말했습니다.

“저 물체는 당신 마음속의 화와 같아요. 건드리고 자극 할수록 더 커지죠. 하지만 가만히 두면 점점 작아져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2015년 5월 12일 ‘(사)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주관으로, 보령 00 사단에 위문 차 다녀오게 되었다. 그 때 동행한 0목사님은 “우리가 위문을 온 것이 아니라, 위문을 받고 가는 것 같다”며 국군장병들의 수고에 마음속으로 미안함의 표현을 하기도하였다. 그렇다 이번 방문으로

인해 필자역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들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유는 사단장이라면 그 부대의 최상의 위치임에도 육군대위인 군종목사를 향하여, “000 대위” 하고 부르지 않고 “목사님!” 하는 호칭에 그 사단장의 얼굴을 다시 한 번 올려다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도 아니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보수 문제 등을 진지하게 묻고 답하며, 기대감을 보이는 겸손함에서 “장병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신감과 강함이 묻어나는 사단장”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래도 군대인데? 사단장이 대위에게 “목사님?”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단장이 아닌가! 이 때 대표회장은 식탁을 마주한 자리임에도 식사에는 아랑곳없이 사단장을 향하여 “예수님을 믿으시나요?”로 시작하여,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순간 당황스러웠기도 하였지만, 대표회장의 복음전도 열정에 그만 빨려 들어가, 큰 도전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은 복음전도”라는 데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성경은 물론 사회에서도 헤라클레스와 같은 힘이나 신분 등에 자만한 나머지 자기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그들에게서는 겸손이나, 정직을 찾아 볼 수 없으며, 도리어 거짓과 위선 속에서 자기의 힘만 생각하고 온갖 악행과 거짓을 일삼다가 스스로 무너져 가는 이들을 얼마든지 보아왔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록 더욱 겸손하면서도 강한 지도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새삼 되새겨 본다.(렘4:1-3)

온선 칼럼

문찬우 목사 // 경기북지방회 온선교회 담임, 고 문오장 목사의 아들
Canada Pacific Life Bible College 졸업 (B. A.),호서대 신학박사 (Th. D)

Non rien de rien (농 히앙 드 히앙)

마 25:1-13



아직 유월인데, 34도라니. 날씨가 미친 거야. 아요, 어쩌라고. 여기 저기서 우리 반 아이들이 내뿜는 소리가 낡은 프린터 종이 뿜는 소리 처럼 툭툭 거리고 튀어나왔다. 몸 전체가 페타이어로 느껴질 정도로 무디고 매질 강하기로 유명한 지광씨(우리들은 영어선생인 김지연 담임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조차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짜든 목소리로 웅성수성하고 있었다. 탁, 지광씨가 밑가루 반죽을 치듯 책을 덮었다. 애틀아덜지? 잠시 쉬었다 하자. 누가 시원한 노래나 한 곡 해라. 지광씨가 미쳤나보다. 그러나 아이들은 속내를 감추고 일제히 외쳤다. 예! 보통 다른 시간이라면 아이들은 시큰둥했겠지만, 지광씨의 입에서 나온 그 한 마디에는 엄청난 리액션을 했다. 누가 할래? 우리들은 약속이나 한듯, 조승에, 조승에, 조승에를 외쳤다.

조승에는 누군가? 우리 반 반장이다. 그리고 언제가 야자시간에 우리들이 떠든다고 담임에게 일러버친 열라 채수 없는 전교 3등이다. 그 사건으로 아이들은 그 전교 3등을 -왕따는 못시키고- 은파시켰다. 설명하기 힘들지만, 생긴 건 예쁘게 불쾌한 얼굴이다. 혼자 두꺼운 볼 여책만 파고 있다. (프랑스어교수가 꿈이란 말을 들은 적도 있는 것 같다) 한 번은 은파를 당하는 그 인간이 측은해 보여서 말을 건넨 적이 있다. 승애야 같이 매질 갈래? 미안. 나 책 읽을 게 있어. 이젠 또 뭐가. 내 얼굴은 붉어졌고, 그 계집애 다시는 상종 안 하기로 다짐했다. 모두 싫어하는 전교 3등, 그것이 바로 조승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 외친 거다. 조승에, 조승에, 조승에.

오, 그래? 조승애가 노래도 잘 하니? 승애야. 한번 불러볼래? 지광씨가 은파씨 같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조승에도 밑가루 반죽을 치

듯탁 책을 덮었다. 그리고는 표정변화도 없이 일어나 눈을 지그시 감고 노래를 시작했다. 농 히앙 드 히앙 (Non rien de rien-나중에 찾아 봤다). 모두 자지러지기 시작했다. 크헤헤헤헤 미치겠다. 무슨 상상을 불러! 와, 완전, 사치원. 재, 포아! 아냐! 아이들의 목소리가 인쇄소용 프린터 소리처럼 우디다, 쏟아졌다. 심지어 우린 책상을 치며 발을 구르기도 했지만, 승애는 가냘픈 소리로 계속 노래했고, 지광씨는 은사 마에서 스테킹 진행자 강호동처럼 티질듯 한 얼굴로 바뀌어 있었다. 상송이 정점에 다다를 무렵, 우리들의 웃음은 이유가 아닌 혼란을 가릴 은폐도구로 변해갔다. 이유는 몰라도, 다들 뭔가 진 것 같다는 감을 각자의 페로몬으로 발산하고 있었다. 쟁쟁. 1987년 여름이었다.

2006년, 대략 초여름. 그날따라 더 길고 낮설게 느껴지던 광화문 거리를 지나다가, 두 가로등 사이에 걸려있는 작은 현수막을 보았다. 경축 한불수교 120주년. 본뜬 있고 있던 조승애가 생각났다. 그녀는 불어교수가 되었을까? 혹시 파리로 리옹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알 수 없다. 만나는 동창도 드문데다가, 조승애에 대해 관심을 갖는 동창은 더 드문듯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 콩나물시루 같았던 교실의 50여명의 학생들 중 자신의 시간과 삶을 살았던 사람은 오직 ‘농 히앙 드 히앙’을 불렀던 조승애였다. “Non rien de rien -아뇨, 그 무엇도, 아무것도 아니예요.” 같잖은 차별의식과 의리 따위 로 승애의 세계를 비웃고, 그녀의 용감한 자기표현에 아쉬울 보냈었던 우리들은 그날,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니었다.

(본내용은 사실을 소설로 재구성한 글이므로 등장인물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시사 진단

박동호 목사 // (사)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상임회장

동성애(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며...



국내 동성애자들에게 6월은 축제의 달이다. 서울시가 동성애자들의 문화 축제인 ‘퀴어문화축제(Korea Queer Culture Festival)’ 2015를 서울광장에서의 사용을 허가하여 6월9일부터 성소수자의 권리를 요구하며 대규모의 행사를 벌일 예정으로 이에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동성애자들에게 내준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기뻐하시며 제일 먼저 만든 것이 가정이다. 하나님은 혼자 사는 아담의 모습이 좋지 않다고 보고 하와를 만드셨다(창 2:18-25). 남녀결합은 인간의 본성이며 창조 원리이다. 그런데 그 신성한 가정을 깨는 것이 동성애이다. 성경에서 동성애는 분명한 죄의 결과며, 성적 타락의 대표적 모습이라고 지적한다. 만약에 동성애가 확산이 된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창복)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로 오는 피해를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는 이 세상에서 인류가 사라지게 하는 악한 일들이 아닌가?

탈 동성애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동성애의 더러운 그 선택으로 오는 사회적 편견이나 법률적 제재는 물론 불륜생활로 인한 도덕적 양심의 가책 속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고귀한 청춘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증언한다. 뿐만 아니라 그로 발생될 수도 있는 심리적 가책과 정신적, 생물학적 문제로 고통 받을 뿐만 아니라 에이즈, B형간염, 임질, 매독에 감염되어 평생을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동성애자의 생활로 인하여 사랑하는 부모형제와의 불화로 가정이 파괴되는 아픔과 함께 가족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병폐를 곧질 병과 가정파괴와 고귀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음란의 물질로부터 생명보다 소중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성애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성애가 선전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탈 동성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씻음으로 동성애를 탈출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대다수의 동성애자는 타고난 게 아니라 성적 쾌락에 중독된 상태 ‘성중독’의 결과이다. 1990년대 이후 동성애 옹호론자 사이에는 성경이 동성애를 절대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지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그중 일부는 ‘하나님이 너를 동성애자로 만

드셨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그러면서 주장하기를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십이 어 ‘원수도 사랑하라’ (마 5:44)고 했다면서 공황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사회적으로는 ‘인권’ 차원에서 동성애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에 남자 며느리와 여자 사위를 맞이할 수 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아들에게 남자 며느리를 배우자로 삼아서 결혼시킬 수 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딸에게 여자 사위를 배우자로 삼아서 결혼시킬 수 있는가?

지난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에 ‘성적 지향’ 즉, 동성애를 포함시키려고 하다가 반대로 무산된 바 있는데, 이후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는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한국교회의 반발로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 몇몇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한다는 명목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으며(경기, 광주, 서울)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에서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들을 게재하고 있다. 심지어 유치원과 초등학교생들이 보는 만화에서도 ‘동성애, 성전환자 존중’을 담아 교육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하면, 서울의 몇몇 구청들이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있으며, 방송 드라마에서 동성애 작품 증가와 동성애 연예인 출연시키는 등,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들이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막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의 6’에 대한 폐지 움직임까지 있다.

또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울산지방법원이 생물학적 반대 성(反對性)의 외부성기 수술 없이도(2006년 대법원에서는 외부성기 수술까지 해야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기준 제시) 성별(性別)을 정정해 주기, 서울시의 성북구에 대한 동성애 상담소 운영과 재정 지원, 또 각 지자체들이 “주민인권선언”을 만들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적 영화를 전국의 170여개 학교에서 상영토록 하기도 했다.

인론회는 “교육부도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어 성소수자(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을 일선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모든 결과의 뒤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압력과 영향력 때문”이라며 “이런 현상들로 인하여, 국가와 청소년들의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

려된다”고 했다.

특히 이들의 입법적 요구는 결국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계적으로는 지난 2001년 네덜란드가 최초로 이를 합법화 한 이후 2014년 현재에는 16개 국가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상태다.

이와 같이 동성애는 악한 영들의 역사로 이미 우리생활 문화 속에 침범하여, 학교와 직장과 군대에서 우리자녀들의 성장체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미 간통죄가 합법화된 현실 속에서 동성애단체들은 미국과 유엔의 힘을 입어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실현코자 동성애 퀴어축제를 확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안 즉, 동성애를 합법화할 경우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못하게 된다. 특히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교회와 목사가 양벌을 받게 되어 있다.

동성애, 동성혼이 윤리적, 성경적으로나 빠지고 교육하거나 설교할 경우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손해배상)을 지게 되어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성차별금지법, 동성혼 합법화 등과 같은 일련의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서 한국교회와 보수성관하는 자세나 침묵이나 무관심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동성애 문제에 방관하거나 배타적인 태도로만 일관하는 동안 최근 동성애자들의 세력화 조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기독교인들까지도 동성애를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선화하고 있어 동성애 문제에 대해 교회가 더 이상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미국교회는 ‘동성애 이슈’로 혼돈과 갈등이 증폭되어 가고 있다. 미국 장로교 PCUSA (The Presbyterian Church USA)마저도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도 실패한 동성애 문제를 막아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케이팝(k-pop)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 한국에서 동성애를 막지 못한다면 그 파급은 전 세계에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마저 무너지면 온 세계가 동성애 천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한다.

남일공예

좋은 원목으로 모든 공정을
남원에서 직접 제작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상 주문제작

생산자 직거래라 비용이 저렴합니다



신임 총회장 진등용 목사에게 축하화환 전달



직전 총회장 김용덕 목사에게 축하화환 전달



신구임원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딤후 6:12)

‘교회의 거룩성 회복에 앞장’ 다짐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4차 정기총회



임원배석



기록서기



투표



투표집계



선교사목사임직



선교사 목사안수



선교사 총대원 인사



목수안수 대상자인준



각 지방회 실행위원 인준



은혜외진리교회 장로성가단의 찬양

제64차 정기총회 기념촬영





순서를 맡은 이들 - 총회 진행순서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설교
미AG 한국총회장 정영호 목사



인사말
신임총회장 진동웅 목사



직전총회장 김용덕 목사



축도
증경총회장 박영찬 목사



폐회기도
증경총회장 이창재 목사



신관위원장 조규선 목사



기도
부총회장 정부웅 목사



사회
총무 엄하석 목사



특별기도1
교리장정위원장 박명일 목사



특별기도2
기획위원장 송광현 목사



특별기도3
여교역자국장 김복희 목사



헌법위원장 한승수 목사



고사위원장 김인규 목사



광고
서기 진영갑 목사



성경봉독
대구경북지방회장 신재영 목사



감사보고
감사위원회 서기 김병목 목사



예산보고
예산위원장 윤병하 목사

근속패 및 감사패



30년 근속패 - 정부웅 목사



30년 근속패 - 임철규 목사



30년 근속패 - 김인희 목사



30년 근속패 - 김윤용 목사



30년 근속패 - 강태진 목사



접수 및 등록하는 총회원들



30년 근속패 - 조병희 목사



30년 근속패 - 이창모 목사



30년 근속패 - 김종근 목사



감사패 - 전장연 회장 차명환 장로



감사패 - 사모회 회장 김영숙 사모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4차 정기총회가 지난 18일(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딤후 6:12)라는 주제 아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열려 한국교회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사명을 확인하는 한편 한국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오는 종교다원주의 사상과 혼합주의를 비롯 이단 사 이비를 배격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 헌신할 것 을 다짐했다.

본지는 64차 정기총회 광경을 화보로 엮는다 ...

편집자 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4차 정기총회 성료

본 교단 제64차 총회에서 당선된 새 임원진

총회장



진동웅 목사
새소망교회

부총회장



조원익 목사
순복음추계교회

총무



김병목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서기



이인규 목사
아세아순복음교회

재무



김종연 목사
의정부은혜교회

회계



김영준 목사
갈릴리큰소망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담 - 나라사랑&자녀사랑운동연대 조직위원장 송춘길 목사 ·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이용희 교수

동성애 저지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 및 국민대회

“오는 6월 9일 서울 시청 앞 대한문광장으로 모여 동성애 축제를 저지하는 데 힘을 모읍시다”

동성애 반대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나라 사랑&자녀사랑운동연대(조직위원장 송춘길 목사)와 에스더기도운동본부(이용희 교수) 두 단체가 또 다시 연대하여 오는 6월 9일 화요일 서울시청앞 대한문광장에서 개최되는 동성애 쿼어 축제를 저지, 대응하기위해 나섰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를 이끌고 있는 송춘길 목사와 이용희 교수를 만나 대담을 가졌다. <편집자 주>

- 송춘길 목사 대담 -

Q 하나님의 법(말씀)에는 동성애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되어있다. 최근 동성애 확산이 대한민국 사회에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 원인은?

A 동성애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롬1:35) 이런 무시무시한 죄악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대단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인권을 앞세운 사람들에게 의해서다. 이들은 동성애자들을 가리켜서 성 소수자라고 하여 소수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으로 주장, 존중하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사상을 퍼뜨리고 있다. 종칼로 인류사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사상이 인류사회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이 사상은 온 세상 인류를 죄악에 빠뜨리는 길이다.

이러한 사상과 동성애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독교회뿐이다. 기독교회는 성경이라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진리이다. 이 빛과 진리를 나타내어 동성애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임을 알게 하여 주어야 한다.

지금은 기독교회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어 동성애가 인권존중으로 보호되어야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임을 알게 하여 확산을 막고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기독교회가 일제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성애는 천벌 받을 죄악임과 죄악의 불요이며 폐륜임을 외쳐 주어야 한다.

Q 6월 9일(화) 동성애 쿼어 축제가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것을 한국교회의 책임이라고 말한바가 있다. 이에 대하여 말해 달라.

A 동성애 쿼어 축제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은 불행한 사태이고 참담한 한국교회의 비극이다. 동성애 쿼어 축제가 개최되는 장소가 어떤 곳인가? 대한민국 심장부 수도 서울하고도 시청광장이 아닌가? 이러한 장소에서 죄악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축제로 개최되고, 더 나아가 경찰의 보호를 받아가며 개최된다. 이 어찌 비극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기독교회로서는 더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음을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여러 많은 교회단체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천만 명이 기독교인이고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목사들이 부지기수다. 이러한 기독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심장파도 같은 서울시청광장에서 동성애 쿼어 축제가 개최되는 이것이 말이 된다고 보는가? 이것은 그만큼 기독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이 세상 사회에 있어서 기독교회가 무엇인가? 빛과 소금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빛과 진리로 나타내고 굳게 세우기야 할 본분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 연고로 한국사회에 동성애가 만연케 된 것이 그 책임에서 한국교회는 피할 수 없다.

Q 동성애 쿼어 축제와 관련해 한국교회의 대처방법은?

A 단회적인 조처이긴 하지만 그 날 제주도에서부터 강원도 오지에 있는 작은 규모의 교회까지 한국교회 모두는 동성애 쿼어 축제가 개최되는 서울시청광장으로 모여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성애는 죄악임을 외쳐야 한다. 한국교회의 이 행위는 빛을 받아서 어두움을 물리치는 행위가 되고 진리를 나타내어 거짓을 물리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청앞 대한문광장이 동성애 자들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더럽혀지기 전에 그 보다 먼저 한국교회 서울시청광장으로 당일 오후 2시 모여서 한국교회의 면모를 하나님께 보여 드리고 동성애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이며 천벌을 받을 죄악임을 선포해야 한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굳게 세우는 행위이며 타락한 인본주의 사상을 물리치는 행위가 되기에, 6월 9일(화) 오후 2시 이날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서울시청 앞 대한문광장으로 나오셔서 교회에게 주어진 본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6월 9일 화요일에 동성애 축제가 개최되는데, 이 축제에 세계 동성애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특히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유럽은 동성애가 보편화 되어 있다. 한국교회가 이들을 찾아가서 동성애가 죄악이기에 금하라고 할 수 없는 형편이 아닌가? 그런데 이번 동성애 쿼어 축제에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성애자들이 제 별로 결어와서 한 자리에 모인다. 한국교회로서는 돌도 없는 좋은 기회이다. 이 기회를 통하여 한



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성애는 죄악이며 천벌 받을 죄악임을 외쳐서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하여 동성애를 버리고 돌아가게 할 수 있기에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이다.

Q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해 달라.

A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가 강하다. 우리 교회라는 성향에 갇혀 있다. 작은 한국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 문제는 동성애자들이나 인권을 애국 시켜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사상가들의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와 책임은 한국교회에 있다. 주어진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 대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한국교회가가 다하지 못함에서 비롯되었기에 6월 9일(화) 오후 2시 이날은 내 교회, 우리 교회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서 동성애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이며 천벌 받을 죄악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세상에 선포하는 한국교회의 날로 삼아야 한다.

(이상 송춘길 목사)

- 이용희 교수 대담 -

Q 동성애가 가져다 주는 폐해는?

A 최근 미국은 전체 50개주 가운데 37개 주에서 동성간 결혼법이 통과 됐으며, 2013년 6월에

는 미 연방대법원에서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간 결합'이라고 규정한 결혼보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미국에서 동성커플인 두 여자가 결혼을 하였고 이들은 또 다시 한 남자와 결혼을 하여 각각 임신하였다. 이 이야기는 한 남편과 두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사는 미국한 '일부다처'이다. 한마디로 말해 동성애가 합법화 된다면 근친상간, 일부다처제 등 결혼에 대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결혼에 대한 정의가 깨진다.

이 뿐만이 아니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2월 학교 내 새로운 성교육 시행령이 통과되었다. 2015년 9월부터 모든 학교에서 시행될 성교육 교과서 수업 내용을 보면, 3학년 (만 8세) 때에는 동성결혼은 정상이며 성별 자기결정, 즉 자신의 성적체성을 남성 혹은 여성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트랜스젠더는 유전임을 배운다.

7학년(만 13세) 때에는 항문성교와 구강성교를 배운다.

이러한 새로운 동성애 성교육법에 분개한 수 백 명의 캐나다 학부모들은 반대집회를 열고, "이 성교육 커리큘럼의 유일한 해결책은 이 모든 것을 폐기하는 것입니다"라고 시위하며 거세게 항의하였으나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 성교육 법을 막을 수 없었다.

프랑스에서도 동성결혼을 반대하기 위해 파리와 리옹에서 10만 명이 모였지만 동성결혼법이 통과된 후 서반대시위로도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다.

한편 앞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격언을 빼

저리게 느끼게 하는 선진국 사례들로서 한국은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Q 동성애 저지 위한 교육적 측면은?

A 전 세계 가운데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는 18개국이며 동성애가 법으로 금지된 나라는 약 80개국에 이른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동성애 합법화의 바람이 불면서 한국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계속적인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

최근 선진국 통계에 의하면 신규 에이즈 감염자의 70% 이상이 남성 동성애자들이다. 미국 질병관리본부 보고에 의하면 청소년·청년의 경우 신규 남성 에이즈 감염자인 약 94%가 동성 간 성행위로 감염되었다. 따라서 성과학연구원은 "동성애는 에이즈를 전파하는 위험행동"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2013년 에이즈 감염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서면서 한국은 공식적으로 '에이즈 확산 위험국가'가 되었으며, 에이즈 감염자 1인당 평균 평생 5억 원 정도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에이즈 환자가 1만 명이면 한 해 이 약값만 3천 6백억 원이고 10만 명이면 3조 6천억 원이다. 이 모든 비용은 100% 국민세금으로 부담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은 에이즈 치료비용을 100% 국민세금으로 부담하는 나라이다.

이제 한국도 '에이즈 공익광고'를 통하여 '동성애는 에이즈를 전파하는 위험행동입니다'라고 전 국민에게 알릴 때가 되었다. 국민개개인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 그리고 에이즈 확산으로 인해 전 국민들이 세 급폭탄 맞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계몽과 교육이 시급한 시점이다.

서구에서 동성애가 합법화 됐다고 한국이 따라할 필요는 전혀 없다.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확산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감안해 볼 때, 오히려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은 성경적인 선진 국가를 이루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윤리 선진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는 6월 13일에 동성애자들은 서울 시청광장에서 동성애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의 중심부이며 대표적인 공공장소인 시청광장에서 동성애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국가의 정래와 우리 자녀들의 생명과 향후 건강을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동성애의 위험성에 대한 공익광고를 시행하며 국민계몽·교육·홍보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위한 간절히 소원한다.

(이상 이용희 교수)

cafe.daum.net/cha2319

세계로교회·기도원

“강원도 횡성 청정지역인 병지방계곡의 수려함과 물 맑고 공기 좋은 세계로교회·기도원에서 연중 무휴 수련회를 받습니다.”

가. 시설

- (1) 식당 : 150명 동시 식사가 가능(유기농 식단)
- (2) 숙소 : 독립객실 15개(4-6인실), 성전숙소 등 총 150명 수용 가능
- (3) 성전 :
 - 대성전(임 프로क्टर 설치) 70평
 - 다니엘 성전 45평
 - * 예배시설 완비(음향, 전자피아노 등)
- (4) 부대시설 : 족구장, 야외테니스장, 동물농장, 구내매점, 바비큐 그릴 설치 등
- (5) 등산로 : 병지방 ~ 어담산 오트캠핑장까지 약 2-3시간 코스

나. 먹 거 리

저희 세계로 교회에서 직접 재배한 친환경 청정 발효물과 인근 산야에서 채취한 야생 산나물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다. 교 통

중양고속도로 횡성IC에서 30분 거리

라. 주변환경

저희 세계로교회는 횡성 어담산관광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급수의 맑고 수려한 병지방계곡과 국내 유일의 중탄산 온천수인 횡성온천이 자근 거리에 있습니다.

- 강원신학교 신·편입 학생모집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연중 수시모집(교무처 010-7504-0172)
 - 학 제 : 본 교단 총회 4년제 신학교
 - 장학/복지 : 이사장 장학금, 학장 장학금, 목회지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기숙사 원비
 - 특 전 : 총회 목회대학원 진학, 전도사 자격부여
 - 주 소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동길54-91 강원신학교 교무처(세계로교회 내)
 - 전 화 : 033-345-2020 (F-P 010-7504-0172)
 - e-mail : i14499@hanmail.net



차충열 목사 · 김복희 목사내외



cafe.daum.net/cha2319

문의전화 : 033-345-2020, 010-5325-9191(차충열 목사)

월드비전, 필립스 아벤트 영유아 용품 기부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뜻 깊은 나눔 실천

국제구호개발NGO월드비전(회장 양호승, www.worldvisionarkr)은 한혜진 홍보대사가 필립스 아벤트를 통해 국내 아이들을 위한 영유아 용품 1,000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9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한혜진 홍보대사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뜻 깊은 나눔을 전하게 되었으며 기부되는 젖병, 이유식기 등 1,000개의 영유아용품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위치한 월드비전 지원 국내시설 20곳의 아동들에게 전달된다.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은 “국내아동들에게 꾸준한 관심과 나눔을 전하는 한혜진 홍보대사와 영유아용품을 지원해준 필립스아벤트에게 감사하다”며 “모든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08년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한혜진은 지구촌 아동들을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 왔다. 특히 국내 결식아동들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봉사를 시작으로 국내아동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해왔



으며, 2013년에는 기성용 후원자와 함께 희귀성 급성 백혈병 소년중앙-조혈모이식 등 시급한 수술이 필요한 12가정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제2회 Hope Healing Camp 개최

‘쉼과 회복 그리고 은혜’ 주제로

호프월드미션(이사장 정종열, 대표 김용국)이 지난 5월 4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가평 로빈나분화마을(대표 이상열)에서 제2회 Hope Healing Camp를 40명의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가졌다.

‘쉼과 회복 그리고 은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에는 10대, 20대, 30대는 물론 40대 이상 다양한 연령층도 참석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자연환경 속에서 은혜는 물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시간도

가졌다.

이번 캠프는 세미나, 찬양, 기도의 시간, 할렐루야, 족구, 물고기 잡기 등 재충전의 시간을 가짐은 물론 호프월드미션이 나아갈 길을 점검하는 기회도 가졌다. 또한 5일에는 6.25전쟁 당시의 치열한 전투지였던 무주재폭포도 방문해 호국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이번 캠프에 참석한 회원들은 은혜로운 쉼과 자연의 환경 속에서 힐링과 치유를 경험한 놀라운 캠프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오늘은 나의 가장 행복한 하루였다

한달 전에 평내순복음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10시에 실시하는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112기로 참석하게 되었다. 첫날부터 학장 박영수 목사의 강의를 듣고, 오후에 박영수 목사와 함께 전도현장에 나섰다.

나가지마자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과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을 전하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일 11시 예배에 나오기로 약속을 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분명히 1분 안에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함이었다. 어떻게 1분 안에 복음을 전하고 바로 영접기도 하고, 자신의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세트로 알려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1시간 동안 12명 이상의 교제를 하고, 결신시키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사실 영혼 살리는 일은 너무나도 급한 일인데 알면서도 안 되는 그래서 안 하는 내 모습에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안일주의에 빠져 이 광계 저 필계를 대면서, 전도를 피했대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였다.

그 후 나는 ‘나도 이렇게 전도하면,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나의 역사지에서 다시 한 번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로 했다. 그래서 학장 박영수 목사를 초청해서, 세트전도 무료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오전에 성도들에게 전도방법을 강의하고, 오후에 전도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나는 또 한 번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박영수 목사와 함께 전도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이름, 핸드폰 번호, 가족사항, 주소까지 적고 교회출석까지 약속하고 교패까지 붙이고 기념사진 찍고, 매주 월요일 날 사업장 예배까지 드리기로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 받아내고 축복기도로 마무리하였다.

지금까지 나는 다양한 전도방법으로 전도를 해왔지만 이렇게 바로 결신시키고 교패까지 붙이는 이런 식의 전도는 처음 보았고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다.

그러나 가족세트전도는 한 주간동안 문자와 편지로 보내는 양육교재까지 있어서 초산자와 거절 확률이 확실시되며 만지 않는 가족들이 세트로 관제전도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전도법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티슈, 물수건, 과자, 소금, 비누, 치약, 봉어



빵, 커피, 녹차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물품전도를 해 봤지만 이 같은 결실은 없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결신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고 지쳐 쓰러질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는데 이 전도법은 가족까지 세트로 전도하고, 결신하고, 교회출석까지 약속을 받아내는 전도법이다.

특히 전도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전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전도를 훼방했던 사람들이 이 능력전도로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기도를 따라하는 것이었다.

삼정리 자전거 대리점 사장, 지역신문 기자, 인력사무실 사장, 세차장 기사, 중국식당 사장, 꽃가게 주인, 택시 기사, 길거리에서 만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예비 영혼들이 가는 곳마다 영접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고 교회 나오기로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나는 현장에서 분명히 보았다.

우리 성도들이 이 능력전도를 통해 기뻐하고 있고 마음 깊이 감사드리고 있다. 성령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뜨겁게 체험하며 감사드리고 있다.

“주님!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능력전도로 복음을 맡겨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평현리 /은혜의교회/ 이병철 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평내순복음교회

천사들의 하모니 ‘CTS대한민국 어린이 합창제’

내달 2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개최

CTS기독교TV(회장 김정철 ‘이하 CTS’)는 오는 6월 2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제5회 CTS 대한민국 어린이합창제’를 개최한다.

CTS 창사 20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성대하게 치러질 ‘제5회 CTS 대한민국 어린이합창제’는 개그맨 고명환과 아나운서 박윤신의 사회로 △동신교회 ‘나실인 어린이 영아성가대’ △우이제일교회 ‘유지부 새싹 성가대’ △한성교회 ‘한성 어린이 선교 합창단’ △CTS 수원 소년소녀 합창단 △CTS 소년소녀 합창단 등 총 8팀이 참가하며, 광림교회 ‘Kwanglim English Musical Mantra’가 영어 뮤지컬로 특별 출연하여 감동적이고 발랄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세계적인 거장 율학원 감독(CTS 예술단감독 겸 CTS소년소녀합창단장)의 지휘아래 4백여 명의 참가팀 전원이 ‘예수께로 가면’을 연합 합창하여 진정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CTS 광고사업팀은 “올해로 제 5회를 맞는 CTS 대한민국 어린이 합창제는 침체되어가는 교회학교와 소



통과 배려가 필요한 한국 사회에 합창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내는 CTS의 중요한 문화사업’이라며 “전국 어린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찬양으로 화합하는 대 축제의 현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5회 CTS 대한민국 어린이합창제’ 실행은 CTS

기독교TV를 통해 전 세계로 방송될 예정이며 CTS는 각 지역 케이블과 SkyLife 173번, IPTV(KT QOOK 236번, SK BTV 551번, LG U+ 180번), 해외위성, CTS APP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문의 : 02-6333-2502

이모션코칭, “감정을 교육하고, 감정을 선물하다”

하나님이 감정의 주인인 삶으로

하이패밀리 가족동작치료센터(원장 김향숙)는 지난 26일(화)~27일(수)까지 “모션(motion)으로 이모션(emotion)을 코칭”하는 제22차 이모션코칭(emotion coaching) 세미나를 개최했다.

감정교육,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특히 한국 사회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학교 폭력, 성폭력, 왕따, 우울, 자살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병리적 현상이다. 이 중 3개 항목이 폭력, 즉 분노 조절의 문제다. 이 모두는 감정교육의 부재로 인한 현상이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저 참으면 되는 줄 알았다. 참으면 쌓인다. 쌓이다보면 분노가 된

다. 분노가 바깥으로 폭발하면 폭력이 되어 살인으로 발전하고, 안에서 폭발하면 우울이 되어 자살로 발전한다. 가정행복을 파괴하는 악성 바이러스다.

이모션 코칭은 감정을 억압, 폭발, 무시,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코칭하도록 돕는다. 감정이 주인인 삶에서, 내가 감정의 주인인 삶, 나이가 궁극적으로 는 하나님이 감정의 주인인 삶으로 변화시켜나간다.

이혼회복학교 | D.R.S(Divorce Recovery School) | TEL 051-914-0676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사야 43:4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열명을 대신하리라(이사야 43:4)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분입니다. 이젠 혼자 아파하지 마십시오. D.R.S에 오셔서 기쁨을 누리십시오

D.R.S는 이혼한 모든 분들에게 강의, 나눔, 심리극, 예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을 알아가고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있는 자녀 양육 문제에 해답을 주며, 또한 하나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통해 기쁨을 누리며 새로운 삶의 Turning point가 될 것입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십시오

1주차성경이 말하는결혼, 이혼, 재혼

2주차정체성회복

3주차성령수령회(1박 2일)

4주차남·여차이

5주차하나님과동행하는삶

가정을 세우는 공동체

순복음빛된교회

주최 | HHMC(HAPPY HOME MISSION CENTER) | 문의 | 051.914.0676(영육치유) | 010.5649.5121

‘총회주일’ - ‘교단역량 결집’

5월 18일(주일) 전국서 헌신 다짐

제68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지난 주일(5월 17일, 62차 총회 제1차 실행위에서 5월 셋째 주일로 변경) 교단 산하 전 교회가 말씀을 통해, 성찬예배를 통해,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 찬양을 통해 총회주일을 기념하고 특별히 소속된 교단 총회를 위한 교회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전 성도들과 함께했다.

특히 총회장 김용덕 목사는 “62차 총회에서 교단 총회 주일로 변경하여 정한 5월 셋째 주일을 총회주일로 지켜 우리가 소속한 교단총회를 위해 기도”를 요청하고 “신의성실을 무기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교역자들과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강조한 뒤 교단 총회를 위한 헌신을 당부했다.

전국교회에서 일제히 지켜진 총회주일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바탕 한뜻으로 교단 산하 전 지방회와 교회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본 교단은 2007년 10월 한국과 세계에 교단의 대통합을 알린 데 이어 2008년 5월 통합교단을 출범시켰다. 많은 회원 교회들이 뜻을 같이해 주었고 안정적인 발전을 다져가고 있으며 고질적 교단의 병폐였던 밀실정치를 뿌리 뽑고 정책 총회로 발돋움하게 되었고, 한국 교회에 교단통합의 새로운 모범을 보이게 되었으며 명실공히 한국 교회 중심교단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전국 교회가 하나 되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준 것이 커다란 발판이 되었음에 기인한다 할 것이다.

총회는 5월 셋째 주일 총회주일이 총회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총회발전의 계기가 되었음을 믿

는다. 이제 전국교회는 각기 형편에 따라 총회주일 헌금에 적극 동참, 우리 교단의 총체적 역량을 결집하여 결집된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이 힘의 결집에 이미 많은 교회가 참여한 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앞으로 모든 교회가 적극 동참하여 교단 발전과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체가 되어 주기를 교단 총회는 기대하고 있다.



을지부대 방문 위문품 전달, 장병 격려하고 민족 평화통일 기원

한국기독교교단협, 장병신앙 위해 설교집 전달



임종달 목사
(사)한국기독교교단협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교단협 의회(대표회장 임종달 목사, 이하 기독교단협)는 지난 12일 대표회장 임종달 목사를 비롯한 34개 회원교단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부

전선을 책임지고 있는 을지부대(소장 조종철)를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병을 격려했다. 또한 이들은 협준한 태백산맥을 끼고 금강산 일만이전봉이 한눈에 보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경을 바라보며 민족 분단의 현실을 마음 속 깊이 새기면서 하루 속히 통일이 될 그날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다.

그동안 기독교단협은 매년 경기도에 있는 부대를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교단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의 추천으로 가장 힘들고 어렵게 군생활을 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로하자는 취지에서 을지부대를 방문하게 되었다. 11시 부대에 도착한 이들은 사단군악대의 합창 환영의 연주 속에 사단장을 비롯한 참모들과 장병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고, 기념촬영 후 대표회장 임종달 목사가 캔커피 2,200개, 초코파이 5,000개, 노



래방 기기 4대 등 준비한 기념품을 전달했다. 기념품 전달 후 참석자들은 부대소개 영화와 부대역사관을 관람한 후 부대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식사 후 을지전망대로 이동한 참석자들은 북녘땅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사무총장 김용도 목사의 사회, 공병철 목사의 기도, 서한철 목사(협인이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대표회장 임종달 목사(전주순례회진리교회)가 ‘결단하라’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다.

임 목사는 설교를 통해 “나라를 지키는 결단,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희생하는 결단,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뜻을 실천하겠다는 결단을 하라”고 당부했다.

을지교회 정한식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특별기도 시간에는 이교의 목사(여정위원장), 김혜순 목사(여교역자 대표), 이상용 목사(회계)가 대통령과 국가, 을지부대장과 전 장병, 군선교를 위해 기도했으며, 대표회장 임종달 목사의 축도로 기념예배를 마친 회원들은 재4땅굴을 견학했다.

한편 이날 을지회관에서 사단장과 부사단장을 비롯한 참모들이 참석해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 전방에 있는 교회들의 시설이 낡아 여름철에 비가 오면 비가 새 예배를 드리기 어려워 수리가 필요하다는 사단장과 사단군목의 요청에 대표회장 임종달 목사는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밖에 임종달 목사는 장병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 설교집과 볼펜을 증정했다.



교회와 교단의 부흥 위해 기도로 헌신

전국사모연합회 제5회 정기총회 개최



신임사모회장
신동신 사모

전국사모연합회(회장 김영숙 사모)는 지난 25일(월) 오전 11시 은혜와진리교회 아카데미에서 제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 회기 동안 사모회의 발전과 교회와 교단의 부흥을 위해 기도로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총회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는 사모회장 김영숙 사

모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신동신 사모의 기도, 직전총회장 김용덕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용덕 목사는 설교를 통해 사모의 귀한 직분을 말씀과 기도로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받들고 섬기며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명자로서의 헌신을 강조하고 사모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회계 차추련 사모의 헌금기도, 김영숙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곧바로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각종 보고사항을 받고 임원선출에 들어가 신임회장에 신동신 사모를 선출했으며 총무에 박경미 사모 등 일부 임원진을 개선했다.



설교
직전총회장 김용덕 목사



직전사모회장
김영숙 사모



정기총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신임원진

초대시

예광 장성연 // 서예가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역임 / 현대기사문학 연구가 / 한국원로서화가 한국대표작가 / 미국 매릴랜드 초대전('98) / 미국 한국대사관 초대전('98) / 문인화 여행 外 13종 서화교본 발행 / 한국민족문화상 수상('06) / 정도 육백년 자랑 스티시민상('94) / 기독교문화예술대상('07) / 도전 한국인상 대상 수상 / 대한민국문화예술대상(국회) / 1998년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우수상 / 1988년 KBS 전국회화대회 금상 / 한국문인협회 회원 / 제4대 서울서예가협회 회장 역임

선교사의 노래 1

(선교사를 위한 노래)

선교사는 전쟁터에 침병처럼 장하지요
목숨까지 티끌처럼 희생각으로 되어있어
주님주신 사명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니
한알의밀 되어져서 수만배를 거두소서

하나님의 복된말씀 선교지에 심고심어
생명말씀 먼저받아 감사하게 사는이여
복음씨앗 뿌리는이 선교사의 사명이니
피땀으로 젖은씨앗 성령열매 맺으소서

선교사는 나를대신 생명걸고 가시는길
나는비록 선교현장 갈수없는 여건에서
기도로써 물질로써 있는정성 다하여서
온누리가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하나님 크신사랑 온세상에 전하는일
믿는자의 사명이요 믿는자의 특권이니
우리모두 힘모아 선교사를 돕는일이
하늘영광 위함이요 복을받는 길이라네

혈액투석환우 부부들 제주도에서 ‘리마인드 웨딩’

4박 5일 제주여행, 삶의 희망 발견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장기기증)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4박 5일간 만성신부전 환자 부부 8쌍과 함께 제주도로 ‘힐링캠프’를 떠났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8일, 혈액투석으로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만성신부전 환자와 기나긴 간병으로 지친 배우자들이 비행기에 몸을 싣었다. 그들이 향하는 목적지는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는 제주도이다.

(재)한화생명(이하 한화)이 후원하는 ‘우리가족 힐링캠프’라는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다.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 환자의 경우 이틀에 한번씩 4~5시간을 혈액투석기로 피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치료를 받아야하기에 장거리 여행을 꿈꿀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번엔 진행되는 힐링캠프에 참가하는 만성신부전 환자와 그 배우자들은 한화생명의 후원으로 리피의 집이라는 시설에 묵으며 투석치료와 숙식을 모두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어 4박 5일간 제주도 여행길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힐링캠프에 참가하는 가족들은 혈액투석 치료와 제주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 외에도 리마인드 결혼식을 올리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5월 19일,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갖춰 입은 만성



신부전 환자 부부들은 제주도 해변에서 리마인드 결혼식을 올리며 웨딩촬영을 진행했다. 결혼식 현장에서 힐링캠프를 후원하는 한화생명의 후원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한화생명(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함께 진행한 힐링캠프는 오랜 혈액투석 치료로 지친 만성 신부전 환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행프

로그램으로 제주도에서의 관광, 숙식, 혈액투석치료, 항공권 등을 모두 무료로 제공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앞으로 힐링캠프를 통해 더 많은 혈액투석 환자들이 제주를 찾아 삶의 희망을 발견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문의: 사랑총보팀 02-363-2114(내선5번)

사설

나라 위해 다함께 기도할 때

6월 호국보훈의 달이다.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우국충렬의 뜻 깊은 계절은 왔건만 이 나라 어느 구석에서도 믿을 만한 국가사회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아 이 백성들은 허탈감에 놓였다.

저 분단의 북녘 땅에선 지금 광란의 30 갓넘은 포악한 독재자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도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북한 동포들이 죽지 못해 최후의 동물적 반작용을 일으켜 언제 일대 민중 반란으로 동토의 땅을 갈아엎을지도 모른다고 여러 북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그 북한 땅을 최우선 경작해야 할 이 남쪽은 무법·불법 이념분자들의 시위가 날이 갈수록 더욱 세를 불리면서 광화문, 종로를 비롯한 수도 심장부에서 도로를 점거하는가 하면 국가 원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주말마다 무질서의 극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호를 격정하는 소리가 드높다. 미·중·러·일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외교안보 총력 대

결을 벌이면서 우리의 국익을 갉아 먹어 들고 있건만, 우리는 오히려 구한말과 같은 내전의 무능과 사회적 분열상에 처해 있지 않은가. 분단과 적의 도발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살길을 강구하기는커녕 일엽편주 격으로 갈팡질팡 대고 있다는 저조 숙인 탄식의 소리가 항간에 드높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약해지고 있으며, 국회는 공무원연금개혁 아홉에서 보여 주듯 오로지 다기오는 선거의 표계산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 기만적 행패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국회해산론’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법원·검찰도 불신을 받고 국가의 기강은 무너지고 있다는 서민대중들의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때이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를 향해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하고 부르며 도움을 청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을 물려받았다. 국가 지도력이 긴요하고 나라가 심히 어지럽고 혼란하며 북녘 땅이 한층 불길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때, 다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거룩함 회복의 초석 되시길...

제64차 교단 성총회에서 새로운 임원진이 선출되었다. 시대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새롭게 선출된 임원들은 막중한 시대적 사명을 어깨에 짊어지게 되었다.

사분오열된 한국교회를 이단 사이비세력으로부터 보호해야함은 물론 연합기구의 통합과제와 교회내에까지 깊숙이 침투해온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세력과 맞서워야 하고 실추된 한국교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교회 본래의 자세인 거룩함을 회복하므로 무너진 신뢰를 복원시키는 중차대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동안 한국 교회에 바른 복음을 전파해온 우리 교단은 세상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진실과 공의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교단의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성회는 현재 세계적으로 36만 교회와 6천5백만 성도들이 섬기고 있는 주요 개신교파로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범람하고 복음의 순수성이 나날이 흔들리고 있는 세상풍조 속에서도 사도시대의 순수 신앙을 지

키고자 함써 오고 있다.

2012년 4월 뉴욕에서 열린 세계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회(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참가)는 2020년까지 50만 교회, 1억 성도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2014년 하나님의성회 100주년 기념성회에는 본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가 감사로 초청받아 전 세계를 향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 은혜와 감동이 계속 회자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교단의 위상은 세계적으로 막대한 임무와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였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찌어다 하셨느니라”(벧전 1:15-16)

2015 새 임원진이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회복되게 하는 역사를 위해 피땀을 흘려주심으로 거룩함으로 변화되게 하는데 초석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회원 모두는 이를 위해 기도하고 성원할 것이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인·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목회담당 부목사 청빙

(현 담임목사는 선교담당)

2년 후 조건 없이(단 교인투표 2/3 가결)
담임목사로 위임함.

자 격 목회 경력 5년 이상, 66년 이후 출생

제출서류 이력서(상세하게)

접수마감 2015년 6월 30일(화)까지

보낼 곳 qusghk1@hanmail.net

울산사랑의교회

http://ulsansrch.onmam.com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우는’

목회자 컨퍼런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



강사
김기진 목사
(010-4112-9313)

약력
제천순복음양문교회 담임
예하성 순복음부흥사회 부회장
제천시교경협의회 회장
제천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동두천 컨퍼런스

일시 매달 셋째주 화요일 오후 2시, 저녁 7시

장소 순복음진리교회
(김바울 목사 사무, H.P 010-8652-9340)

부산 컨퍼런스

일시 매달 넷째주 월요일 오후 2시, 저녁 7시

장소 세계열방교회
(김금남 목사 사무, H.P 010-8259-2090)

부산 치유집회 일정

일시 매달 넷째주 화요일 오후 2시, 저녁 7시

장소 부산시내산기도원
(박영은 원장, H.P 010-6573-3490)

총회원 초청 특별행사

한국교회 부흥과 성경중심주의 신앙 '감동'

미국 AG 더글라스 클레이 목사 설교, 뮤지컬 '휴거' 관람
정상운 교수 특강, 천주교의 실상-WCC의 실제 규명



설교 더글라스 클레이 목사
통역 최원기 목사

교단 정책위원회와 은혜와진리교회가 주관한 총회원 초청 특별행사가 지난 25일(월)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은혜와진리교회(안양) 대성전 및 뮤지컬 공연장에서 열려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된 시간을 총회원들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먼저 국회의원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이란 제목의 특강이 있었으며 이 의원은 정치, 경제, 사회 변화, 교육,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정치인들이 먼저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함을 스스로 다짐하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기도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했다.

점심사 후 이어진 특강시간에는 전 성경대 총장 정상운 교수가 천주교에 대한 실상과 현주

소 그리고 WCC와 관련하여 이를 규명하고 한국 교회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를 집중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교수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며 천주교는 말씀+전승(전통)의 종교라며 기독교와 천주교는 분명히 다르다고 전하고 복음주의의 바른 성경적 신앙관을 가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분명 천주교를 넘어설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곧바로 교단 노숙자선교위원회 이원용 목사는 전 세계에서 보도된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관련 각종 보도자료의 주요내용을 다양하게 영상자료를 통해 보여주며 현대의 동성애에 대한 시각을 조명하고 이에 대한 단호하고도 지혜로운 대처를 당부했다. 이어 미국 하나님의성회 교단 본부 임원인 재무 더글라스 클레이 목사(통역 최원기 목사)는 요6:1-13 말씀을 본문으로 '한국교회의 큰 일보 전진'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의 진일보한 실상을 보게 되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전하고 "특히 세계 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 조용목 목사님은 작년 미국 하나님의성회 백주년성회에서 강력한 메시지로 전 세계인에게 큰 감동을 전해 주셨다"고 말한 뒤 오병이어의 기적이 목회지역에도 일어나므로 세계선교에 크게 쓰임 받는 교회와 교단이 되기를 축복했다.

클레이 목사는 설교 후 본 교단 정책위원들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미국 하나님의성회는 전략적으로 차세대교육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전하고 "젊은 세대들이 성경 그대로를 믿고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며 오순절 성령체험을 받고 또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도움을 주어야한다"고 강조하여 정책위원들의 큰 공감을 받기도 했다.

이날 총회원들과 참석자들은 뮤지컬 공연장인 카이노스성전으로 옮겨 GNTC장작뮤지컬 '휴거'를 관람했다.

GNTC장작뮤지컬 '휴거'는 세상의 어떠한 변화나 어려움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믿음을 제일로 삼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가족들의 영광스러운 휴거와, 반면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물질우선주의, 성공우선주의, 지식우선주의, 쾌락우선주의 등 세속주의에 빠져 영적인 잠을 자던 가족 그리고 여러 가지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거역하며 예수 믿는 가족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7년 대환난에 버려둠을 당한 후 뒤늦게나마 깨닫고 구원을 얻기 위해 감내해야하는 참혹한 과정을 묘사한 것이다.

아울러 GNTC장작뮤지컬 '휴거'는 하나님을 떠나 멸망길로 달려가는 많은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내용이다. 뮤지컬 공연장으로서 완벽한 시설, 객석의 자를 비롯 연출, 조명, 음향, 배경 영상, 소품 등 완벽한 무대장치와 전문인들로 구성된 다양한 스태프, 5십여 명의 출연배우, 철저한 연습과정을 거쳐 탄생한 '휴거' 공연은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강사소개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특강
이인제 의원



특강
정상운 총장



특강
이원용 목사



사회
총회장 진동용 목사



축도
중경총회장 유봉수 목사



대표기도
중경총회장 임종달 목사



성경봉독
중경총회장 이창재 목사



미국 하나님의성회 재무 더글라스 클레이 목사와 환담하는 정책위원들



조용목목사와 클레이 목사가뮤지컬 배우들을 격려하고 있다



새누리당이인제 최고위원과 환담



뮤지컬 '휴거' 공연중...



뮤지컬전용 공연장 카이노스성전 모습



강사더글라스 클레이목사의 인도로 성경중심의 강력한복음전파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다